

‘한국불교와 세계불교 대화 점점찾기’ 언어·종교관 극복부터

2006 교수불자대회 현장



국내의 불교학자 100명 참가 ... 논문 30편 발표 미래 불교문화 방향 정립 이론토대 마련 '성과'

들의 종교성향에 부합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탐욕·성냄·어리석음, 삼독을 버려라' '남을 헐뜯지 말라' '나를 바꾸고 이웃을 사랑하라' '재물과 진리를 널리 베풀라' 등 현대사회에서 근본불교의 실천 강령을 제시했다. 동국대 강사 마성 스님은 '상좌불교와 대승불교의 삼보관 비교'란 논문을 통해 초기불교의 전통을 계승한 상좌불교와 부파불교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흥기한 대

승불교의 차이점은 '신앙의 전개 형태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성 스님은 "상좌불교 국가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불자들은 기본적인 신앙에 매달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전불교' '행동불교'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을 불확실한 현존에 대한 보호막으로 삼고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불행과 고난을 피해가고 이것을 자신의 종교·도덕적 행동에 의존한

‘한국의 사찰문화재 총정복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 발간

문화유산발굴조사단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탁연은)은 최근 사찰문화재 일제조사 보고서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북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사진)편을 발간했다. 이번 일제조사는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사찰소장 동산문화재를 총 10개년 계획(2002~2011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충청북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의 사찰을 대상으로 2005년도에 조사한 결과 보고서이다. 조사대상은 충청북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에 소재한 조계종 및 대교종을 비롯한 모든 종단의 사찰들을 포괄했으며, 지정·비지정문화재를 총망라했다. 유형별로는 불교조각·불교회화·불교공예를 비롯한 경관·전적 등 이동이 용이한 동산문화재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도난과 현상변경이 가능한 석탑 및 승탑 등 석조문화재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보고서는 충청북도지역 161개 사찰에서 1,332건 9,716점의 문화재와 광주광역시 36개 사찰 650건 675점의 문화재를 담고 있다. 또 전라남도 246개 사찰에



서 7,504건 39,045점 등 총 443개 사찰 9,486건 49,436점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 내용이 실려 있다. 한편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현재 강원·전북·전남·충북·충남·제주 지역 사찰에 대한 연도별 문화재 조사를 마친 상태며 2011년까지 서울·경기·부산·경남·경북 등지의 사찰 문화재 5만 6,000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칠 계획에 있다. 노병철 기자 ssasim@buddhan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60>

더위와 6시그마

더운 지방에서 '종교 천재'들이 많이 출현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부처님께서도 더운 인도에서 태어나셨고, 예수께서도 더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활동하셨다. 그리고 모하메드 역시 열사의 사막에서 메시아가 되었다. 아마, 더운 날씨가 인간에게 시련과 동시에 신성함을 주는지도 모른다. 이집트의 파라미드를 본 사람은 더운 열사에서 종교적인 심볼을 만든 이집트인들의 종교적 정신과 과학적인 집념에 경이를 느낀다고 한다. 더운 날씨가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과 죽음에 노출되는 기회를 줌으로써, 인간을 종교적으로 만드는 모양이다.

반면에 모하메드는 식중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자기가 보지 않는 곳에서 잡은 고기는 결코 먹지 못하게 할 것을 보면, 더운 여름에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가진 것 같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수명 연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과학기술이 의학도 약학도 아닌 냉동기술, 상수도 기술이라고 한다. 깨끗한 물 그리고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냉동기술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킨 일등공신이다. 분자의 속도의 평균과 평균에 벗어나 있는 정도를 과학자들은 시그마라고 표현한다. 시그마가 크면, 퍼져 있는 정도가 큰 것이다. 키가 큰 사람이

더위는 분자 운동에 몸이 반응하는 인연작용 수명연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기술 '냉동기술'

부처님 역시 더위와 잠마 때문에 병고를 지른 적이 있다. 부처님은 대장장이 춘다가 공양한 돼지고기를 잡수시고 식중독으로 열반하셨다고 열반경에 기록하고 있다. 경전에 나오는 비구들의 식사 장면을 상상하면 수행이 방편으로 적당할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건강에는 적당하지 않은 식사라고도 할 수 있다. 식사 때가 되면, 수천명의 비구들이 발우와 바리때를 가지고 사위성으로 들어간다. 음식을 빌 때는 결코 주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주는 대로 받는다. 또한 받는 음식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씹어서 먹는다. 여기에는 채식, 육식의 구분이 없었고, 상한 음식, 좋은 음식의 구분도 없었으리라. 음식에서 조차 집착하지 말라. 사방하는 것과는 반드시 헤어지고 나는 것은 모두 사라지나니, 내가 죽는 뒤에도 불법을 스스로 삼아서 방일(放逸)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설한 자비심을 느껴보도록 하자.

많은 만큼, 작은 사람도 많은 서양 사람들의 키 분포는 매우 시그마가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온도가 높은 분자는 바로 이 시그마가 큰 집단이며, 온도가 낮은 분자는 시그마가 작은 집단이다. 인간에 있어서도 천재는 시그마가 큰 집단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만큼 문제도 많이 있기 마련이다. 더운 여름, 해변가나 계곡 생각이 날 때, 가끔 이 더위라고 하는 것조차도 공기 분자 분포의 크기에 의해서 내 몸이 반응하는 인연 작용임을 상기하도록 하자. 그리고 참기 힘든 식중독의 괴로움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슬퍼하지도 말고, 탄식하지 말라. 사방하는 것과는 반드시 헤어지고 나는 것은 모두 사라지나니, 내가 죽는 뒤에도 불법을 스스로 삼아서 방일(放逸)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설한 자비심을 느껴보도록 하자.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문병성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구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시	수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울,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련)
전원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영합관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영합관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즐거우며 수업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계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경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2006년 8월 1일부터 □ 입학일: 9월 4일(월)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행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술사 원비
□ 교 수 진: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두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약간명

□ 수업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요점바라도량계작법, 다계작법사방요신, 법고무시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대혜스님